

초·중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 전라남도 장흥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Music Curriculum Management in Integrat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Jangheung-gun, Jeollanam-do

김인우**

In Woo Kim 

초록 본 연구는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인식을 통해 음악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탐색하고, 향후 음악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장흥군 초·중 통합운영학교 2개교에서 음악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육행정가 총 8명을 개인 면담하였다. 질문지는 CBAM 모형의 관심 단계를 기반으로 반구조화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서 교원 구성의 이원화 및 학교급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교사들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 단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 '공간 및 악기 활용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관리자의 갈등 중재'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행·재정 시스템 일원화', '해외 통합운영학교 사례를 참고한 지침 마련',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모델의 유형화'를 제안한다.

주제어: 통합운영학교, 음악 수업,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 인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music curriculum management by investigating teachers' perceptions in integrated schools to understand current practices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A total of eight teachers and administrators from two integrat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Jangheung-gun, Jeollanam-do, were interviewed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based on the CBAM model, focusing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peration methods, teacher perceptions, and suggestion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eachers experienced challenges related to the dual staff composition,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chool levels regard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operation methods. Most teachers demonstrated a strong willingness to adapt to chang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integrat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study recommends raising awareness within the educational community, enhancing flexibility in the use of space and instruments, and mediating conflicts through school administrators.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office streamlin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s, develop guidelines based on integrated school models from abroad, and dispatch experts to establish model typologies.

Key words: integrated school, music class, rural area, small school, teachers' perception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Educational Research Program (ERP)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2024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lsdn3694@gmail.com

Teacher, Janghueng Elementary School, 23, Uihyang-gil, Jangheung-eup, Jangheung-gun, Jeollanam-do, Korea

Received: 31 August 2024, Reviewed (Revised): 3 October (8 October) 2024, Accepted: 4 November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2014년 약 638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4년 현재 약 522만 명으로, 10년간 약 116만 명이 감소하였다(Youth Policy Evaluation and Analysis Center, 2024). 이러한 급격한 감소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93개 학교가 폐교되는 등 심각한 통폐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Kim, 2024),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초·중등교육법(Ministry of Education, 2023) 제19조에 명기된 것처럼,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고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로 정의된다. 이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며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교육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Lee, 2018). 이러한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다른 학교급의 학교들을 통합·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Min, 2023).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 1996), 1998년 8개교를 시작하여 현재 약 100개교로 증가하고 있다(Chung, Park & Lee, 2021). 통합운영학교 설치와 운영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통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 지역 등에서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의 학습 평등권을 위한 공간적 대안이 되고 있다(Park, 2017; Park, 2024). 그러나 통합운영학교의 예산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 행·재정 지원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Min, 2023).

이러한 표면적인 통합은 특히 통합운영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 두드러지며,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 간의 수준 차이, 초·중등학교 간의 시정 차이 그리고 교원 구성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이러한 교원 구성의 이원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른 학교급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예체능, 영어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학교급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Jang, 2019).

특히 음악 교과는 통합운영학교에서 연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과 중 하나로(Jang, 2019), 통합운영학교 내 수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인식 조사는 더욱 필요하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의

대부분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의 예체능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Choi & Baik, 2014), 학생들은 예술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충남, 전북, 경북, 전남 등 지방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Lee & Lee, 2020).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도내 지자체의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Yonhap news, 2023) 인구절벽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흥군과 같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통합운영학교 연구는 통합운영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전라남도를 비롯한 농어촌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과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 음악 교육과정 운영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Min, 2023).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라남도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로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 중 장흥군에서 지정한 초·중 통합운영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교사 및 교육행정가를 면담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탐색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합운영학교

1) 통합운영학교의 의미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들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1996년 교육개혁 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 1996)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향후 종합학교, 결합학교, 통합학교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있지만(Park, 2012) 현재 초·중등교육법(Minist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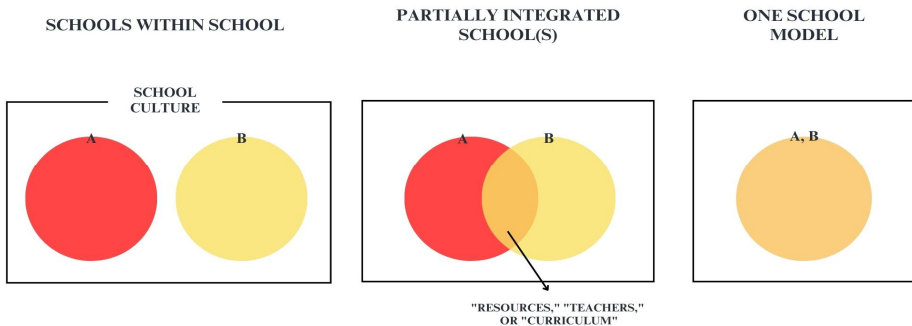
Education, 2023) 제30조에 의거하여 통합운영학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중략) 의견 수렴 절차 및 제 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흔히 통합운영학교와 통합학교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합운영학교는 아직 학교의 종류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학교라고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m, 2016).

2)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모델

통합운영학교는 시설, 교원 편성 그리고 교육과정 등 통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보여준다. 최준렬 외(Choi, Park, Park & Kim, 2019)는 “병렬적 통합 모형(Schools within School)”, “부분적 학교통합 모형(Partially Integrated Schools)”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학교로 재탄생하는 “한 학교(One School Model) 통합 모형” 등 세 가지로 일반화하여 분류하였다. 아래 [Figure 1A], [Figure 1B], [Figure 1C]는 세 가지 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1A. Schools within school

1B. Partially Integrated Schools

1C. One school model

[Figure 1] Types of integrated school models (Choi, Park, Park & Kim, 2019)

(1) 병렬적 학교통합 모델(Schools within school)

병렬적 학교통합은 학교 내 학교 독립 모델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 형태를 나타낸다. [Figure 1A]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교 문화(school culture)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각 학교급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통합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Choi, Park, Park & Kim, 2019). 대한민국에서도 병렬적 학교통합 모형의 형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초·중등교육법(Ministry of Education, 2023) 제5조(학교의 병설)에 의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並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은 주요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도 학교급 간에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서는 [Figure 1B]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직원, 행정 및 예산,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등 다양한 요소의 부분적 통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은 통합 요소들에 따라 학교의 형태가 달라진다. 한국의 통합운영학교는 시설 및 설비는 통합하되, 교과 교육과정은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부분적 학교통합 사례로 볼 수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3) 한 학교 통합 모델(One School Model)

한 학교 통합 모델은 여러 개의 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완전히 통합되는 모형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학교가 통합하여 하나의 학교로 재탄생하게 된다. 한 학교 통합 모델의 사례는 호주의 “Combined scho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Combined school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학교급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예 새로운 학교명을 갖게 된다. 또한 다른 학교급의 교원들은 하나의 교무 조직을 구성한다(Choi, Park, Park & Kim, 2019).

3) 통합운영학교의 실태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전국적으로 8개 교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가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100개 교가 넘게 이르렀다(Woo & Kim, 2022).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 운영 학교는 57개 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운영학교는 56개 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운영되는 학교는 6개 교이다(Woo & Kim, 2022).

이러한 통합운영학교는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여건 부족이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는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 정책에 따라 일정 학생 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농촌형 통합운영학교가 제시되고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또한 농촌형뿐만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2017년도에 5개교가 승인되어 설립되었다.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농촌형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20학급 이상, 중학교의 학급수가 12학급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들로 구성되며, 앞으로도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Im, 2016).

4)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교원 편성

통합운영학교의 교원 수급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Ministry of Education, 2024)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2. 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7.>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하거나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실제로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통합운영학교 실태에 맞게 교원 배치를 조정하는데 제약을 가하며, 학교 경영자와 관할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통합운영학교가 교원 구성의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급 간의 교차 수업의 제도적 제한을 야기한다.

오형문(Oh,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교원 구성의 이원화”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교원 구성의 이원화란 각 학교급의 교원 편성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한 학교 내에서도 초등학교는 초등 교사, 중학교는 중등 교사가 분리되어 배치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시수 문

제로 인해 같은 학교급의 다른 지역이나 학교로 순회 근무를 하기도 한다(Woo & Kim, 2022). 그러나 초등과 중등 교원 자격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학교 내에서 다른 학교급으로의 교차 수업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7년 기준 전국 43개의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 38개교의 547명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교차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향후 학교급 간 교차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82.8%의 교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Choi, Park, Park & Kim, 2019).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원 편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통합운영 학교는 교사 감축보다는 두 개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각각 한 명으로 감축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2023). 특히 교사들은 두 개 학교는 교원 편성에서는 엄연히 별개의 학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Woo & Kim, 2022).

2. 장흥군 내 통합운영학교 현황

1) 용산 초·중학교

용산 초·중학교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다. 용산 초등학교와 용산중학교는 1971년에 각각 개교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자로 장흥 용산 초·중학교로 통합되었다. 2024년도 기준, 재학생은 초등학생은 25명, 중학생은 22명으로 총 47명이다. 교직원은 점임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포함하여, 초등 소속 교직원 13명, 중등 소속 교직원 8명, 행정 소속 교직원 17명으로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용산 초·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Ministry of Education, 2023) 제30조와 동법 시행령(Ministry of Education, 2024) 제56조에 따라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통합운영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감축 대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각각 한 명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Min, 2023).

용산 초·중학교의 시설은 본관동과 모듈리(초등학교 임시 건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모듈리는 ‘콘테이너 건물’로 불리며, 통합운영학교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 학교의 시설을 이전하면서 임시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다. 모듈리 건물은 ‘용산초등학교’라고 표기되어 있어 본관동과 분리된 초등학교 건물임을 나타낸다. 용산 초·중학교는 도서관(도서실)과 과학실 등 일부 특별실은 본관동과 모듈리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정규 교과 수업은 분리되어 운영되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초·중 통합 운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예로 “남상천 플로깅”(봉사활동), “스포츠 관람 체험학습”(자율활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용산 발표회”(음악, 진로활동)나 “마을 도전활동”은 같은 날 이루어지지만, 계획과 운영 면에서

초등과 중등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즉, 용산 초·중학교는 교원이 최소한으로 통합되었으며(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 등), 시설 또한 운동장과 강당을 제외한 건물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각 학교급의 경계가 분명한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로 볼 수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교육과정 운영은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일부 통합하여 운영한다.

2) 유치 초·중학교

유치 초·중학교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다. 유치 초등학교와 유치중학교는 1971년에 각각 개교하였으며, 이후 2002년 3월 1일자로 유치 초·중학교로 통합되었다. 2024학년도 기준, 재학생은 초등학교 5학급 18명, 중학교 3학급 23명으로 총 41명이다. 교직원원은 겸임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초등 소속 교직원 10명, 중등 소속 교직원 11명, 행정 소속 교직원 12명으로 총 33명으로 구성되어있다(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유치 초·중학교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며, 가운데 위치한 교무실과 계단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간이 구분된다. 직접 방문한 결과, 음악실, 도서관, 행정실을 포함한 특별실과 운동장 등 대부분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약 20년간의 개편 과정과 시설 공동 사용으로 인해 “빛솔 꿈축제”(학예회), “프로젝트데이”, “과학의 날 행사” 등 대부분의 행사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 다모임”(자치 활동), “유치 나눔의 날”(봉사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도 통합하여 운영된다(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즉, 유치 초·중학교는 교원 통합이 최소화되어 있으나(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 등), 용산 초·중학교와 달리 시설은 온전히 통합되어 있다. 또한 교과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통합 운영되는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로 볼 수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초·중 통합운영학교 2개교인 용산 초·중

학교와 유치 초·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현재 음악 수업을 하거나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및 교육행정가 총 8인을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면담 조사 내용은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사의 인식 그리고 제안점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2024년 6월 25일과 7월 12일에 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8명의 면담 대상을 각 30분씩 총 240분간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8명 중 6명은 초등 교사, 2명은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였다.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 중 1명은 음악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후 음악 중등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였다. 초등 교사는 일반 초등 교사 3명, 부장 교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대상자 대부분은 경력이 15년 이하이며 통합운영학교와 일반 학교 모두에서 재직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분석을 위해 8명의 교사들은 영문 알파벳 A부터 H까지의 익명 코드를 부여하여 처리되었다. 용산 초·중학교 교사는 A부터 C, 유치 초·중학교 교사는 D부터 H로 구분하였다.

용산 초·중학교에서는 C 교사(초등 교과전담교사)가 음악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치 초·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을 각 담임교사인 D, E, F 교사가 맡고 있으며, 중학교 음악 수업은 H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외의 연구 대상자들은 음악 수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음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연구부장, 창의적 체험 활동 등)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각 교사의 교원 자격증 종류, 재직 경력, 업무 및 지도 학급 그리고 음악 수업 여부 등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Table 1> Background of participants

School	Teacher	Teacher certification	Years of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in integrated schools)	Duties (Assigned grade)	Remarks (Music class assignment)
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Yongsan-myeon, Jangheung-gun	A	Elementary education	25 years (1 year and 5 months)	Head of research (6th)	Educational administrator (X)
	B	Elementary education	8 years (5 months)	Activities (1st&2nd)	(X)
	C	Secondary education	2 years (5 months)	Cultural arts (1st to 6th)	Contract teacher (O)

<Table 1> Continued

School	Teacher	Teacher certification	Years of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in integrated schools)	Duties (Assigned grade)	Remarks (Music class assignment)
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Yuchi-myeon, Jangheung-gun	D	Elementary education	11 years (2 years and 5 months)	Head of academic affairs (5th)	Educational administrator (O)
	E	Elementary education	10 years (1 year and 5 months)	Head of research (6th)	Educational administrator (O)
	F	Elementary education	7 years (1 year and 5 months)	Activities (3rd)	(O)
	G	Elementary education	8 years (5 months)	Student life (1st & 2nd)	(X)
	H	Secondary education	5 years (3 years and 5 months)	Cultural arts (1st to 3rd)	(O)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물리적 환경, 운영 방법, 교사의 인식 및 제안점 등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토대로 각각 세부 질문을 만들었다. 질문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 관련 운영 경험
 - 물리적 환경의 특징 및 제안점
-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
 - 운영 방법 관련 경험
 - 운영 방법의 특징 및 제안점
-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사 의견
 - 통합운영학교에서의 개인의 경험
 - 통합운영학교에서의 개인의 관심 단계

이 중 교사의 의견을 묻는 질문 문항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시 교사의 정서와 신념을 관찰할 수 있는 관심 중심 실행모형(Concerns Based Adoption Model, CBAM)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Hall & Hord, 2001). CBAM은 교육 행정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교사의 반응과 인식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주로 질문지법이나 면담을 통해 교사의 정서와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집중 학년·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관심 단계를 분석하거나(Lee & Lee, 2020),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Shin & Park, 2023). 이 중 관심 단계는 무관심(0, Unrelated), 자신에 대한 관심(1~2, Self concern), 업무에 대한 관심(3, Task concern)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4~6, Impact concern)등으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Fuller, 1969). 또한, 이 모델은 교사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편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eorge, Hall & Stiegelbauer, 2006).

본 연구에서는 이 관심 단계를 바탕으로 질문 문항을 반구조화하여 타 지역 통합운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2인과 교육전문가 2인 등 전문가 집단의 안면 타당도 검사를 수행한 후, 수정 후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 사용하였다. 또한 소속 대학원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의 승인(No.: 202407-SB-0348-01)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구두로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모든 연구 데이터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각 연구 문제(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사의 인식, 제안점)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두 학교 또는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응답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 연구 방법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장흥군 소재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또는 전국의 모든 통합운영학교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면담 응답자가 총 8명인 소수의 표본으로 면담 내용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전라남도 장흥군 초·중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의 초·중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방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 연구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제안점도 함께 다루었다. 다음은 장흥군 소재 용산 초·중학교와 유치 초·중학교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용산 초·중학교

(1)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용산 초·중학교는 통합운영학교 모델 중 최소한의 교원과 시설만 통합운영되는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에 해당하며, 초등학교 건물은 모듈러(임시 건물)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동장, 대강당, 급식실 등의 물적 자원은 공유하지만, 음악실과 악기 보관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① 모듈러 사용과 초·중등 시설 분리

용산 초·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설적으로 분리된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을 포함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 간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초등학교 건물은 모듈러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통합운영학교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건물 형태이다.

분석 결과, 용산 초·중학교 교사들은 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동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해 다른 학교급의 시설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용 시설 관리의 책임 소재 및 예산 배정에 관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며, 운동장과 강당과 같은 공용 공간은 철저히 관리된 시간표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인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A교사(초등 연구부장) : 현재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학부모들도 학교가 언제 새로 지어질지 걱정이 큼니다. 이는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학교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운동장과 강당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물적 자원 공유의 제한)

② 초등학교 음악실 및 악기 보관실 부재

통합운영학교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설 부족은 초등학교 음악실 및 악기 보관실의 부재로 이어져,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기나 교구가 적정 배치된 음악 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으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용산 초·중학교는 “꿈 자람실”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교실을 음악실 대체 공간을 사용하면서, 악기 보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부 악기 및 교구는 공간 부족으로 창고에 방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건물 이전 과정에서 악기와 같은 교육 기자재가 다량 폐기되어 교과서에 소개된 악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등 기자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C교사(음악 전담 교사) : 정식 음악실이 없어서 꿈 자람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급하게 악기를 창고로 옮겨야 해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악기 보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 드나드는 일도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 학교에서 옮겨온 악기들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음악실 부재 및 악기 부족 문제)

용산 초·중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두 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렬적 통합 모델이 아닌, 초·중학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학교가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즉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의 음악실과 악기,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인 거리 측면에서도 두 건물이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시설 및 교구의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중학교 시설은 중학교 교사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 활용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학교의 물적 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2)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

용산 초·중학교는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이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원 구성은 이원화되어 있어,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 등 최소한의 교원만이 통합되어 있다. 그 결과, 중학교 음악 교사는 초등학교 수업에 교차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별도로 교과전담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 구성의 이원화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악 교과

수업 및 행사 등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① 초등학교 음악 교과전담교사 배치

용산 초·중학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등 음악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초등 음악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전교생이 38명으로 교원 추가 편성이 어려운 상황과, 농어촌 면 단위 지역에서 초등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기인한다. 용산초등학교는 담임교사들이 예체능 과목 중 한 과목을 협의 후 선택하여 기간제로 채용한 것이다. 다른 일부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도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초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체능, 과학 교과 등의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를 초등학교 기간제 늘봄교사로 채용하여 교과 전담 수업을 맡기고 있다(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23). 그러나 이러한 기간제 채용 방식은 임시적이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다른 학교급에 대한 적응 문제는 교육청 연수나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여 극복한다고 파악된다. 용산 초·중학교 음악 교과전담 교사는 자신의 음악적 지식을 바탕으로 초등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수준에 맞춘 음악 수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다양한 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음악 수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6학년 담임교사이자 연구부장은 중등 자격증을 가진 음악 교사가 초등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C 교사(초등 음악 전담 교사) : 중등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생의 음악 수업을 맡게 되면 학생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4학년 학생들은 국악을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몇 번을 수업한 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적다 보니, 6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를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를 적응하는데 오래걸렸어요.(초등 음악 전담 교사의 적응 문제)

② 음악과 교육과정 초·중등 분리 운영

용산 초·중학교는 통합운영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수업, 동아리 활동, 행사에서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학교는 음악 수업이 음악 교과 전담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중등 음악 교사가 따로 배치되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의 연계와 일관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m, 2016). 하지만 이러한 분리 운영은 통합운영학교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분리 운영 방식이 두 학교급 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 학예회 행사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함께 통합하여 진행되었으나, 무대에 오르는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양측 교사들 간의 예산 사용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상호 업무 전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또한, 각 학교급별 회의 후 진행된 통합회의에서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의사소통의 오해로 인해 교사들 간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대부분의 음악 교과 관련 행사를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른 학교급 간의 갈등은 이전 중초교사 제도를 겪은 교사 인식연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원 양성기관의 차이나 초·중등의 교직 분위기의 차이로 인해 초·중등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won & Lim, 2022).

B교사 : 올 해는 큰 음악 교과 행사인 학예회를 축소하여 용산 발표회로 대체하려고 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날로 계획하고는 있지만, 예산 사용과 행정 처리 등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나 방법도 초등과 중등이 분리하는 방법으로 계획하다 보니, 초등과 중등의 프로그램이 사실상 연결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악 행사 분리 운영)

(3)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및 논의

용산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내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개인적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BAM(Concern-Based Adoption Model) 관심 단계(Hall & Hord, 2001)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CBAM 모형의 관심단계는 학교 내에서 특정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개인이 가지는 복합적인 사고나 행동을 확인하는 모형이다(Hall & Hord, 2001). 본 연구에서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단계를 면담 방법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경력과 담당 업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경력이 길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부장은 5단계(협동적 관심)를 보인 반면, 경력이 짧고 통합운영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제 교사는 2단계(개인적 관심)에 머물렀다. 용산 초·중학교 교사들의 관심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Stages of concern based on the backgrounds of teachers at 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chool	Teacher	Teacher certification	Years of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in integrated schools)	Duties (Music class assignment)	Stages of concern
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	Elementary education	25 years (1 year and 5 months)	Head of research (X)	Stage 5
	B	Elementary education	8 years (5 months)	Activities (X)	Stage 3
	C	Secondary education	2 years (5 months)	Cultural arts (O)	Stage 2

용산 초·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사례와 교사 인식을 분석한 결과,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교원 편성, 교육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분리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분리 운영 방식은 교사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며,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성과 교육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교육 연속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쟁점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용산 초·중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 간의 시설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초등학교 음악실의 부재가 음악 교과 운영에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급 간의 시설 및 교구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 사용 시의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음악실이나 악기 보관실의 증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초등학교는 임시 건물에 각 학급 교실이 이미 모두 배치되어 있어, 음악실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꿈 자람실”과 같은 대체 공간의 사용 시간을 수업 전후로 충분히 보장하여, 음악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음악실과 악기 등의 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지원청은 초·중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물 사용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실 증축과 시설 공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운영학교의 목적과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운영학교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교급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초·중 등 통합 동아리 활동부터 교사 연수, 교육지원청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부족한 학생수를 보완하고, 교육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학교 크기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Im, 2016). 그러나 현재 용산 초·중학교는 수업을 포함하여 용산 발표회와 동아리 활동 등 음악과 교육과정 대부분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통합운영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통합운영학교의 잠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만, 용산 초·중학교의 다른 교과에서는 통합운영된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 교과에서 구기 종목을 할 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팀 구성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합운영을 통해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 교수·학습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악 교과에서도 합창, 합주 활동 등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적정 규모의 인원수를 충족시키고, 음악성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으며, 악기를 배우는 기간이 길어져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운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리 운영이 지속되는 이유는 교사들 간의 학교급 간 이해 부족과 과거 갈등 경험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용산 발표회”와 같은 음악 교과 및 진로 활동, “마을 도전 활동” 등 자율활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날 참여하지만, 계획, 운영, 예산 사용 등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생 자치회와 교사 회의 등도 학교급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통합운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행사 성격에 맞는 학교급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 간에도 서로의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수준을 넘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침과 학교급 간 갈등 시 관리자의 중재 방법을 단계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력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초빙 연수 제공이 필요하다.

2) 유치 초·중학교

(1)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유치 초·중학교는 용산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에 속하지만, 초·중등 학생이 동일 건물을 사용하며 특별실 및 수업에 필요한 악기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① 특별실 공동 사용

유치 초·중학교는 한 건물 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대부분의 물리적 환경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이 과정에서 초·중등 교사 간의 장소 사용에 관한 시간 조정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0분인 반면 중학교는 45분씩 진행되어, 두 학교급 간의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이 미묘하게 어긋나게 된다. 이로 인해 특별실 사용 시간표를 짜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음악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각 담임교사 D, E, F 교사와 중학교 음악교사 H 교사는 음악실 사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음악 전공 교사가 상주하고 있어 음악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중학교 음악 교사는 음악실 사용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측에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양측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E교사(초등 연구부장) : 학기 초나 매달 있는 전체 회의 때 특별실 사용 시간이나 수업 시간표를 짜는데, 아무래도 강당이나 체육관이 초등학생들에게 더 우선이니 음악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악 수업은 교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체육수업은 교실에서 하기 힘들니까요. 또 음악실에서 악기를 빌린 후에 다시 반납을 하러 가야하는데, 중학교 수업이 초등학교와 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이나 대여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음악실 사용의 한계)

H교사(중등 교사) :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동생이니까 특별실 사용에서 본인들이 양보를 항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실 또한 서로 합의만 된다면 양보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실 사용의 초·중등 의견 차이)

② 악기 및 교구의 적정 배치

한편, 유치 초·중학교는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소규모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더해 초·중등학교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학교 전체에 다양한 악기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F교사 : 우리 반 교실에 리코더, 오카리나, 칼림바 등 다양한 악기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악기 구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교과에서 음악으로 처음 넘어오는 3학년 우리 반 학생들은 이런 환경 덕에 음악 수업을 무서워하지 않고 더욱 흥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악기 확보 가능)

(2)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

유치 초·중학교는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Partially Integrated Schools)이나 교원의 구성은 이원화되어 있어 초·중등 간의 교차 수업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생의 정규 수업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통합운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합운영의 특징은 음악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난다.

① 교원 구성의 이원화로 인한 초·중등 교차 수업 제한

유치 초·중학교는 동일한 시설을 공유하는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이지만, 교원 구성은 학교급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음악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교사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도적인 이유로 교차 수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중등 음악 교사에게 복도나 비교과 수업 등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규 수업에서는 교차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D교사(초등 교무부장): 초·중등 수업을 통합하는 것은 현재 교원 구성의 이원화 제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6학년 교실은 중학교 교실과 매우 가까이 있는데, 예체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 선생님 교실에 찾아가거나 복도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차 수업의 제도적 한계)

또한, 중등 음악 교사가 교원 구성의 이원화로 인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초등 학급의 정규 수업을 담당할 수 없으나, 대신 다른 중학교로 출장을 나가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교원 운영이 발견된다. 유치중학교는 각 학년에 1학급만 배치되어 있다(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연간 136시간의 음악 수업을 환산하면(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23), 학교 내 음악 교과 정규 시수가 주당 4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장흥군 내 다른 면 단위 중학교로 출장하여 순회 수업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② 음악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반면, 유치 초·중학교는 수업을 제외한 다양한 음악 교육과정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학교급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 교과의 예산이 통합되고, 교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더욱 다채로운 행사 구성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작년 학예회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음악적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통합운영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무대 설치와 시간 조율 과정에서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빛술 꿈축제”(학예회)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며, 중학교 교사들도 대체로 통합운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예회 외에도, 중학교 예산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음악회”에 초등학교생들이 함께 참여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서 통합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H 교사 (중등 교사) : 통합운영학교의 큰 장점 중 하나가 학교급 간의 연속성과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케이스로 밴드 동아리가 있지만 학생 수준 차이로 인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은 빛술 꿈축제(학예회)를 음악 발표회가 아닌 축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예회에 대한 참여가 초등학교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때도 있어요. 중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예회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3) 통합운영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및 논의

유치 초·중학교 내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CBAM(Concern-Based Adoption Model) 관심 단계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주로 3단계(운영적 관심)와 5단계(협동적 관심) 수준의 관심을 보였으며 0단계(무관심)나 1~2단계(개인적 관심)에 머무른 경우는 없었다. 특히 초등 연구부장장과 교무부장장과 같은 교육행정가는 5단계인 협동적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업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유치 초·중학교 교사들의 통합운영학교 내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Stages of concern based on the backgrounds of teachers at 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chool	Teacher	Teacher certification	Years of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in integrated schools)	Duties (Music class assignment)	Stages of concern
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	Elementary education	11 years (2 years and 5 months)	Head of academic affairs (O)	Stage 5
	E	Elementary education	10 years (1 year and 5 months)	Head of research (O)	Stage 5
	F	Elementary education	7 years (1 year and 5 months)	Activities (O)	Stage 3

<Table 3> Continued

School	Teacher	Teacher certification	Years of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in integrated schools)	Duties (Music class assignment)	Stages of concern
	G	Elementary education	8 years (5 months)	Student life (X)	Stage 3
	H	Secondary education	5 years (3 years and 5 months)	Cultural arts (O)	Stage 3

E교사 (초등 연구부장) : 처음에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을 6단계(강화적 관심)로 목표로 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업무 스트레스와 한계로 인해 관심도가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통합운영 업무 및 초·중 연계와 관련된 업무가 많아 협동적 관심인 5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가의 통합운영학교 관심 단계)

유치 초·중학교의 교사 인식과 음악과 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2002년에 개편된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안정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통합운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구체적인 예로는 “빛솔 꿈축제”, “프로젝트 데이”와 같은 학교 행사의 통합운영이 있으며, 교육 계획 내 중장기 특색 사업으로 “초·중 통합 문화 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학생 경험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발휘하고 있어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초·중학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논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간 활용의 시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고정된 시간표로 인해 특별실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학급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중간놀이 시간(2교시 이후 약 20분간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오후 시정을 조정하거나, 구글 캘린더나 네이버의 특별실 예약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실 및 특별실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다른 학교급 간의 제한과 상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초·중등 통합으로 운영된 학예회는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음악 교과 관련 행사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다른 학교급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

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 회의, 교육과정 협의회 그리고 학생 자치회 등을 통해 전체 교육 공동체가 각기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관심 수준이 아직 낮은 경우, 높은 관심을 가진 교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Fuller, 1969). 특히 중등 음악 교사의 순회 근무 등 교차 수업 제한에 대한 논의는 유치 초·중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Chung, Park & Lee, 2021).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급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 간의 상호 이해와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음악 교과는 통합운영학교에서 통합의 가능성이 높은 과목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Jang, 2019),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설이나 교원 수급에서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전라남도 장흥군의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8명의 현직 교사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통합운영학교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 자원 공유라는 통합운영학교의 목표(Min, 2023)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설 및 교구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공동 활용이 부족하고 교차 수업 제한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특히, 부분적 학교통합 모델로 분류된 학교 중 상당수가 병렬적 통합모델에 머물러 있어,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도기 단계에 있는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분리 운영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하나, 이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운영을 통해 오히려 음악실의 부재, 악기 부족 문제 그리고 예산 시스템의 분리로 인한 업무 불편 등의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랜 기간 통합운영을 시행해 온 유치초등학교와 같은 사례에서는 오히려 한 학교(One School Model) 통합 모형을 선호하는 등, 교사들이 예산 절감, 물적·인적 자원 공유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정 규모화 등 통합운영학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 공유 가이드 라인 마련

과 일원화된 업무 시스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농어촌 통합 운영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등 신생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원활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통합운영학교 내에서 다른 학교급 간 인식 차이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설이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통합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통합운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이전의 중초교사 제도를 겪은 음악 교사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각 학교급의 교육 방식, 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등 전반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won & Lim, 2022). 통합운영학교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급의 교사가 공존하는 만큼 이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두 학교 조사 내용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Im, 2016).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통합운영학교의 장기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학교급을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교사에게는 성과 평가 등에서 추가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에게는 갈등 중재와 통합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과, 갈등 발생 시 따라야 할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운영학교의 모델 분류는 각 학교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현재 모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통합의 형태와 수준이 다양하며,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장흥군 내의 통합운영학교에서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통합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는 음악 교과 운영에 물리적 환경과 운영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동일한 모델 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Choi, Park, Park & Kim, 2019). 따라서 현재 통합운영학교들을 모델별로 구분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세분화하는 유형화 연구가 필요하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운영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통합운영학교의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통합운영학교에서 예체능 교과, 특히 음악 교과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22)에서는 악기와 디지털 음악실 구축 등 물리적 자원이 교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통합운영학교는 이러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해 한 음악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악 교과는 통합운영의 가능성이 높은 교과로 평가되며(Jang, 2019), 실제로 용산 초·중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인해 교원 자격증을 넘어서는 교차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통합운영학교 음악 교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호주의 Combined School(Choi, Park, Park & Kim, 2019)과 같은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음악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음악 교육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Daniel, 2005).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운영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겪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인수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통합운영학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악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i, H. S., & Baik, J. Y. (2014). A study on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for the educ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0(2), 89-111.
- Choi, J. R., Park, S. C., Park, C. H., & Kim, H. H. (2019).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 on the integrat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K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2), 45-70.
- Chung, M. K., Park, S. W., & Lee, S. E. (2021). A study on combined primary and middle school as a model of flexible education system.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7(4), 29-52.
- Daniel, I. (2005). Music education in rural areas: A few keys to success. *Music Educator Journal*, 92(2), 30-34.
- Fuller, F. F. (1969).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6(2), 207-226.
- George, A. A., Hall, G. E., & Stiegelbauer, S. M. (2006). *Measuring implementation in schools: The 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Austin, TX: SEDL.
- Hall, G. E., & Hord, S. M. (2001). *Implementing change*. Boston, MA: Allyn and Bacon.
- Huh, S. Y., & Kim, M. S. (202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music education program

- for the low-income Juvenil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293-316.
- Im, Y. K. (2016). Issues and tasks of integrated management school. *K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2(2), 83-104.
- Jang, B. S. (201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consolidated school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2(1), 1-24.
-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23). *Jeollanam-do middl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guidelines*. Muan: Department of Secondary Education.
- Kim, S. H. (2024). Fewer children...Over the past three years, 7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have been merged. *Yonhap News*.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9096200530>
- Kwon, S., & Jung, Y. J.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pplication for the learning of recorder ensemble in elementary school using app invent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4), 1-23.
- Kwon, S., & Lim, E. J. (2022). The implications of the integrated teacher training system based on the case of the dual-licensed elementary music teacher system in music.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22, 173-197.
- Lee, D. S. (2018). *Small schools are the hope*. Seoul: Giyeok.
- Lee, J. Y., & Lee, J. K. (2020).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 and performance of integrated operation school.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19(4), 50-59.
- Lee, S. Y., & Lee, Y. K.(2020). An analysis of stages of concern regarding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of teachres using CB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259-282.
- Min, Y. S. (2023).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in small-scale integrated schools in rural area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20), 105-119.
-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General guidelines*. Sejong: Author.
- _____ (2024, May 7).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jong: School Teaching and Learning Innovation Department.
- _____ (2023, October 24).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jong: School Teaching and Learning Innovation Department.
- Oh, H. M. (2010). The study of the conflicts' cause and resolving conflicts with teachers

- in a combin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1(2), 93-115.
- Park, J. S. (2024). A study on accessibility changes following school consolidation scenarios: Focusing on closed and integrated operation school.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M. K. (2017). A study on middle-high integrated school management status and the activation plan: Focusing on South Gyeongsang province.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S. C.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bined school system in Korea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2(2), 107-128.
- Park, S. H. (2024). An investigation on music teachers'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as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2), 187-210.
-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 (1996). *Educational innovation policies for establishing a new educational system to lead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eoul: Secretaria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
- Shin, M. C., & Park, I. W. (2023). Investigation of K-12 teachers' stages of concern and innovation configuration about the utilization of Edtech based on CBAM.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9(1), 275-314
- Woo, M. S., & Kim, M. H. (2022).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and issues of school budget management at the combined schools: Case studies of tw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3), 635-653.
- Yongs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2024 Yongsan education plan*. Janghueng: Teachers' Office.
- Yonhap News (2023). 18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a depopulated area...Including Yeosu and Naju.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112400054>
- Youth Policy Evaluation and Analysis Center (2024). School-age population trend.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ypec.re.kr/board?menuId=MENU00327>
- Yuch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024, March 26). *Yuchi education plan 2024*. Janghueng: Teachers' Office.